하나님 나라의 잔치

The Feast of the Kingdom of God

누가복음 14:15-2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0월 6일 설교

15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큰 잔치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겨 말씀하시는데 잔치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는 곳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는지,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는 언제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구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이 바로 이 비유를 들려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과 관련된 비유겠지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중병에 걸린 환자도 고쳐주시고 또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씀도 가르치신 다음 대뜸 자기를 초청한 집 주인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보게. 식사에 손님을 청할 때는 자네를 다시 초청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청하지 말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청해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걸세."

주님의 대화 방식

주인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빴겠지요.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이 분이 추종자가 많은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노선은 좀 다르지만 훌륭한 선지자라 하니 모신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 먹이라는 이 말씀은 초대 잘못 했다는 뜻도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그걸 꼭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전공인 거 다 아시지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쁠 말씀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그냥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스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 했을 때는 '사람 음식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하고 정말 모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7:25-30).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고향이라고 특혜를 누리는 건 꿈도 꾸지 말라' 하셨다가 분노한 군중에게 죽임을 당하실 뻔도 했습니다 (눅 4:16-30).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복도 걷어차게 됩니다. 기분 나쁜 거 꾹 누르고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동양의 지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좋고, 유익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기에는 좋다 하지요. 그런 지혜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합니다. 대놓고 말해 기분 나쁘다면 나만 손해입니다. 대놓고 말하든 돌려 말하든 듣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지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면 나를 위해 준비된 복인데 못 받으면 나만 억울하지요.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듣기 싫을 때, 기분 나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함

주인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그 순간에 누가 한 마디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반박하는 말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말입니다. 집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원한 한 마디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식사니까 거기 와 있던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초대하라는 말도 기분이 나쁘지만 초대하라는 대상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더 나쁩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장애인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을 초대해야 나도 덩달아 복을 받지 저주 받은 사람들을 초대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들을 나도 저주해야지 그 사람들을 대접했다가 나까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한 말은 “예수 당신 말 틀렸소!” 하는 소립니다. 가난하지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몸에 장애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같이 모여 먹는 이런 자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초대해 먹이면 심판 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그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가진 자의 논리지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맞는 소리겠지만 세상에 죄가 얼마나 깊이 또 넓게 퍼져 있는지 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

초대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는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당시에 RSVP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인이 분노했다는 걸 봐서는 아마도 그 때는 다 오겠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되어 종들을 보내 오라 했더니 하나같이 못 오겠다 합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하나는 밭을 샀답니다. 계약하러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밭은 이미 샀는데 바쁘다는 소립니다. 곡식도 심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하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답니다. 한 겨리가 두 마리니까 열 마리면 상당한 재산입니다. 소를 샀는데 아직 테스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러 가야 되겠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오겠답니다.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못 오겠다 했는데 다 핑계입니다. 다른 때 해도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잔치에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밭이 얼마나 크면 잔치에 못 올 정도로 바쁘겠습니까? 소 열 마리 검사하는 게 얼마나 시급하기에 잔치에 못 올까요? 결혼식이라면 중요하니까 잔치에 못 오겠지요. 그런데 장가는 이미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물론 바쁘지요. 그렇지만 잔치에 못 올 정도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변명 부분을 일부러 길게 말씀하십니다. 둘러대는 말은 원래 기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셋 다 핑계면서 또 다른 공통점은 셋 다 배가 불렀다는 점입니다. 밭을 사고 소 다섯 겨리를 산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먹고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반대지요. 장가를 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잔치니까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배가 부르니 그런 것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안 오겠다는 겁니다.

초대받지 않고 끌려온 사람들

주인이 분노합니다. 다 올 줄 알고 귀한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거절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거절한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초대받은 일도 없습니다. 돈 있고 몸 건강한 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은 가난하고 병 걸리고 장애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을 불러오라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러올 곳도 집이 아니라 길거리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불러오라 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을 다 불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습니다. 엄청나게 큰 잔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길과 산울가, 그러니까 언덕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예 마을에서 못 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주로 문둥병 즉 한센 병 환자들이 그런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냥 오라 해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러운 몸이라 쫓겨났는데 어찌 감히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특히 위대하신 분이 베푼 그 귀한 잔치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끌고 오라 합니다.

주인의 결론이 뭡니까? 처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쁘다고 못 오겠다 한 그 사람들은 단 하나도 이 잔치에

못 들어올 것이다!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다 밀려나고, 백 퍼센트 초청을 못 받은 사람들로만 잔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

처음 초청을 받았다가 거절한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거절로 빈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은 우리 같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 이방인을 가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 아니, 스스로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을 가졌습니다. 병도 안 들고 장애도 없는 몸입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남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들은 권세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분이라 하고 높으신 분이라 받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십니까? 아닙니다. 저 스스로 거절합니다. 집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이 특별한 잔치마저 싫답니다.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다는 거지요.

이들은 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 조항은 하나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면 바리새인이 일등일 겁니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니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우리는 당신 안 믿어도 구원받소 하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오래 전 초청장을 보내신 하나님이 드디어 잔치가 마련되었다고 종을 보내 알려 주셨는데 필요없다 하고, 난 다른 일로 바쁘다 하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돈이 없는 사람, 몸에 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주님 말씀은 그렇지요. 그렇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 들어가겠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장애가 특권 아닙니까? 주차도 특별한 곳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은 그런 뜻도 아닙니다. 넌 장애가 있으니 고생한 대신 구원을 주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엉겁결에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왜요? 가진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 몸 아픈 것, 그거 특권 아닙니다. 그게 특권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의 비유를 오해한 겁니다. 초대받은 적이 없는 사람, 초대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이 갑니다. 집이 있어야 초대장 받을 주소라도 있을 건데 그게 없어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갑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어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하고 몸이 닿기만 해도 더러워진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더럽기 때문에 오라 해도 안 옵니다. 냅킨 한 장도 내 옷보다 깨끗하고 귀해 보입니다. 못 오지요. 그래서 괜찮으니 가자 하고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다.

까닭 모를 은혜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한 마디로 참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잔치입니다. 초청장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런 훌륭한 잔치에 참석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가방 끈도 안 길고 사회적인 명성도 없고 주인하고 친분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니다. 빈자리 채우는 거 사실 기분 나쁜 일이지요. 잔치에 오라 하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와서 당신을 불렀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게 기분 나쁠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기분이 나쁘다면 처음부터 거절한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겠지요.

길과 산울가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사실을 알면 더 기분이 나쁘겠지요. 가난한 사람, 장애인을 다 모아도 자리가 비어 나까지 불렀답니다. 하다 하다 안 돼서 나를 불렀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람대접 못 받고 사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잔치에서도 초대도 못 받고 빈자리 채우는 사람도 아니고 채우다 채우다 안 되니까 그제야 불렀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불러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맛 좋다고 허겁지겁 먹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나라 잔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입니다. 여기 초대 받고 온 손님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아주 기분 나빠

야 될 자리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 해 우리가 불려왔습니다.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장 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면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다 더러운 죄인이요 이런 자리에 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못 간다 버티는 우리를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오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왔습니다.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살 찢고 피 흘려 주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권수경 목사)